

# 로마 신도시(E42) 국제회의장에 관한 연구

- 아달베르토 리베라의 당선작(1937-1943)을 중심으로 -

이 대 진

(영남대 건축학부 조교수)

주제어 : 파시즘, 아달베르토 리베라, E42, 국제회의장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2차 세계대전 사이에 속하는 1919~39년 사이 기간의 이탈리아 파시즘시대에는 아달베르토 리베라, 주세페 테라니, 모란디 등 많은 거장 건축가들이 있었다. 이들 거장 건축가들은 예술가이상으로 시대적 상황인 파시즘건축과 적극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건축예술가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파시즘시대에는 대규모 현상설계가 개최되면서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현상설계가 신도시(E42)<sup>1)</sup> ‘국제회의장 공모전’이다.

이 현상설계에서 아달베르토 리베라(Adalberto Libera)가 제출한 공모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많은 변화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작품은 한편으로는 근대 이탈리아 파시즘건축 중 왜곡된 모더니즘의 결과물로 평가절하 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물의 우수성으로 인해 파시즘건축의 기념비적인 건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건축적 가치와 평가를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자료의 분산과 멸실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이 작품의 관련 자료들은 파리 폰피두센터의 아달베르토 리베라 문서고<sup>2)</sup>에 원본자료가 보관·관리되고 있다. 또한, 이 현상설계와 직접 관련된 자료들은 로마 신도시에 소재한 ‘E42에 관한 자료실’<sup>3)</sup>에 보관되어 있다.

\* 이 논문은 영남대학교 교비특별공모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7.9.1-2008.8.31)

1) 신도시(E42)는 로마만국박람회 (Esposizione Universale di Roma)의 개최 장소인데, 당시 브록셀에 본부를 둔 유럽의 만국박람회는 약칭 EUR이라고도 하는 중요한 국제행사였다. 무솔리니는 이 박람회를 통해 이디오피아전쟁에 대한 오명파 파쇼당의 2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1942년에 개최될 예정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처음에는 E42라고 불렀다. 현재 신도시라는 의미로 EUR를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www.wikipedia.org, EUR, 2009.7.1)

2) 로마의 딸이 관리하던 리베라 관련 자료들은 파리 폰피두센터 문서고에 기증으로 이관함으로써, 2000년 자료조사 당시 중요 자료만 정리된 상태로 보관 박스에 분류되어 있었다.

3) 이탈리아 파쇼정권의 독재자 무솔리니(B. Mussolini)와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회의장 현상설계 관련 자료 대부분이 미공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신도시(E42) 국제회의장 현상설계안 당선작을 중심으로 잔존 원본 스케치들을 조사하여 건축설계의 변화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건축개념과 전개과정을 도출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태적 특성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하나의 현상설계에서 완공된 작품을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국제회의장’ 현상설계의 당선 건축가인 아달베르토 리베라와 로마 신도시의 주도적 건축가역할을 한 건축가 피아첸티의 상관성은 물론, 파시즘시대 모더니즘건축의 고전주의건축의 수용과정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파리 ‘퐁피두센터의 아달베르토 리베라 문서고’의 원본 자료를 조사하였고, 이 현상공모와 관련된 잡지와 서류 등의 기록과 선행 연구성과<sup>4)</sup>를 고찰하는 한편, 이미 조사된 자료<sup>5)</sup>와 연구업적을 기초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로마 신도시(E42)의 ‘국제회의장’의 원본 자료가 있는 파리 퐁피두센터를 1999년 5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방문하여 1차적 자료를 연구<sup>6)</sup>하였고,

4) AA.VV., 『Adalberto Libera -Opera completa-』, Milano, 250~255쪽, 1989. 1928년부터 1988년까지 리베라에 관련된 연구목록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회의장’에 관한 최근 연구업적은 Michele Vajuso의 연구서인 『E42 -la gestione di un progetto complesso』에서 파악할 수 있다.

5) 참고문헌에 수록된 책에서 일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수차의 걸친 단독 연구서의 출간에도 불구하고, 설계의 시작과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6) 2000년 파리 퐁피두센터의 리베라 문서고는 분류 박스에 의해 기증 받은 상태로 미정리 보관되고 있었으며, 관련 모든 자료는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문서고 출입허가와 장기체류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2차적 자료의 수집과 정리하여 본 연구를 수행

2004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건축대학 도서관 문서고와 피렌체대학 건축학부 문서고 등을 방문하여 2차적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 후 2008년에 수집된 관련 자료에 대해 분류 및 재검토작업을 실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모더니즘과 리베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의 이탈리아 건축은 하나의 통일된 건축양식을 갖지 못하고 표류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전주의적 성향은 지속적인 맥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1900년대란 의미의 노베첸토(Novecento)운동이 전개되는데, 고전건축의 건축언어를 단순화시켜 삼각형, 원, 사각형 등의 단순 기하형태의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920년대 이탈리아의 파시즘시대의 건축계 상황을 살펴보면, ‘노베첸토’라 불리는 일종의 고전주의 리바이벌 운동과 젊은 건축가들이 중심이 된 아방가르드의 모더니즘운동이 파시즘시대에 공존하고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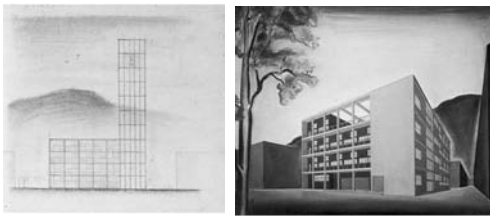


<그림 1> M. Piacentini, 브레샤시의 빅토리아 광장계획,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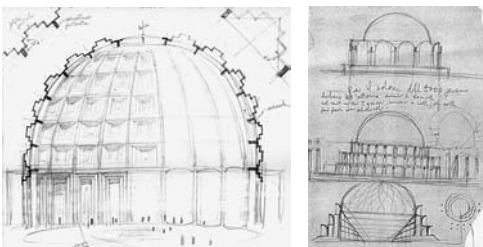
하게 되었다.

7) 김종현, 『이탈리아어권의 신흥리주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1호, 80쪽, 1997

특히, 그림 1.의 브레샤시는 전형적인 고전주의 리바이벌로 현재까지 보존이 잘되어 있는 피아첸티니(Piacentini)의 도시계획이다. 그 후 그는 본 연구의 대상인 로마 신도시(E42)에서 총감독으로 고전주의 리바이벌 운동의 대표적 건축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고대 로마의 영광을 계승하려는 파시즘과 결탁하여 전형적인 고대 로마건축으로부터 유추된 건축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정치적인 건축가로 활동한다.



<그림 2> 테라니, 카사 델 파쇼건물, 초기도면과 투시도, 1932-1933



<그림 3> 리베라, 철근콘크리트 판테온 계획안, 대학시절 스케치, 1920, 1926

한편, 모더니즘 건축운동인 그룹7(Gruppo 7)은 젊은 건축가들<sup>8)</sup>로 주축이 되어 북부지방인 밀라노와 토리노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제2회 합리주의 건축 전시회’ 개최 이후, 1930년 47명의 회원으로 리베라를 총 책임자로 4개의 지부를 가진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운동<sup>9)</sup>을 정식 발족시켰다.

8) 테라니(G. Terragni), 폴리니(G. Pollini), 리바(C. E. Rava), 라르코(S. Larco), 프레테(G. Frette), 피지니(L. Figini) 카스타그놀리 (U. Castagnoli)였으며, 이중 카스타그놀리는 1927년 리베라(A. Libera)로 대체되었다.

9)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가들은 M.I.A.R.(Movimento

이 구성원들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건축가는 테라니(G. Terragni)로 까자 델 파쇼건물<sup>10)</sup> 대표적 건물이다. 그는 르포르뷔제와 교류 등에 의해 강한 국제주의경향의 건축을 추구함으로써 고전주의 건축의 형태적 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건축관을 가진 진정한 모더니스트<sup>11)</sup>로 알려져 있다.

테라니와 달리, 아달베르토 리베라<sup>12)</sup>는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운동의 건축가들 중에서도 일련의 현상설계에서 고전주의 건축가들<sup>13)</sup>과 많은 협력 작업을 한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 활동적 배경은 리베라가 파시즘시대는 물론, 그 후에도 그의 모더니즘건축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고전주의건축과 조화는 물론, 이상주의적 건축 경향으로 나아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모더니스트 리베라의 고전주의적 건축<sup>14)</sup>언어의 도입은 일련의 동료 고전주의 건축가들과 협동 작업을 통해 발생한 불행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가로 성장과정이었다

Italiano Architettura Razionale)의 구성원들이 대표적이다. 1928년 ‘합리주의건축 전시회’를 시작으로 1931년 ‘제2의 합리주의 건축선언’에서 고전주의 건축가들의 작품을 비난하면서 스펀들을 일으켰으나, 결국, 파시즘정권과 불안정한 관계로 1931년 해체되었다.

10) 이대진, 「이탈리아 코모(COMO)에 까자 델 파쇼(CASA DEL FASCIO)의 디자인 전개방법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5호, 140~141쪽, 2004.

11) 모더니스트(modernista)는 르포르뷔제의 건축과 러시아 구성주의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탈리아 젊은 건축가를 칭하는 것으로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

12) 리베라는 1903년 8월 16일 이탈리아 북부의 트렌토시(Trento)의 인접 소도시 빌라라가리나(Villalagarina)에서 태어났다. 1929년 로마건축대학을 졸업하고 최초의 이탈리아 모더니즘운동인 그룹7(Gruppo 7)에 참가하면서 건축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13) De Renzi, Vaccaro, Valente, Guerrini

14) 현재의 시점에서 그 당시 전통주의건축, 고전주의건축과 신고전주의건축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절충주의’ 건축과도 구분이 힘들다. 특히, 대다수의 건축가들이 스스로 합리주의건축가로 칭하고 있어, 분류작업은 역사가의 몫으로 생각된다.

대학시절부터 여러 가지 고대 로마건축에 관련 응용 스케치를 남겼다. (그림 3 참조)

리베라의 이러한 작업은 고전주의 건축의 근대적 건축형태 수용을 위한 건축언어 개발의 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리베라는 모더니스트이면서도, 파시즘 정권 말기에 질충주의적 건축스타일을 추구하는 건축가 피아첸티니<sup>15)</sup>가 신도시(E42)의 주도적인 건축가로 활동할 시기에도 초기 동료 건축가였던 테라니와 달리, 현저히 많은 작품 활동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그는 파시즘시대의 건축가 활동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전주의, 모더니즘 그리고 이상주의가 복합된 건축경향을 보여, 근·현대 이탈리아건축에서 가장 개성적인 건축언어를 사용한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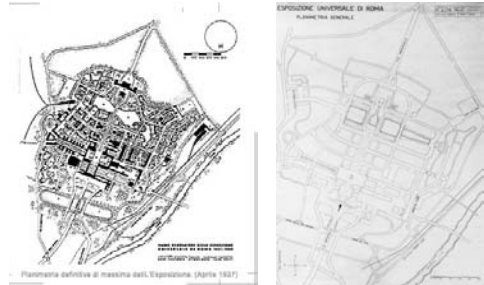
## 2-2. 고전주의와 로마 신도시(E42)

1931년 이탈리아 합리주의운동(MIAR) 건축가들이 주도한 전시회들, 특히 제3회 합리주의 건축 전시회에서 이 젊은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건축이 파시스트 체제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함으로써 독재자 무솔리니에게 감동을 주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불행한 선택 때문에, 모더니스트들의 건축활동은 세계 1,2차대전 사이인 1927년부터 1943년사이에 주로 전개되다가, 무솔리니의 사망과 세계 제2차 대전 종결로 급격히 쇠퇴한다. 이들의 파시즘시대 건축은 고대문명 중심지였던 이탈리아의 지역적 한계성으로 인해,

15) Marcello Piacentini (1881-1960) 로마건축대학 교수, 1922-42년까지 잡지'L'Architettura'의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1927년 빅토리광장의 재구성, 1932년 레지나 엘리나 거리, 1932년 로마 대학도시, 특히, 1937-42년까지 파가노, 피치나토, 루시, 비에티 등과 함께 '로마 국제 박람회' 계획에 참가했다.

중세적인 고전주의 언어의 현대화와 고대 로마의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으로 이탈리아의 기존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통을 고수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sup>16)</sup>



<그림 4> 신도시(E42) 1차, 2차 제출도면

당시 파시즘건축을 대변하던 피아첸티니는 모더니스트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파시즘 정권으로부터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1938년에 착공된 로마 신도시(E42)는 초기 밀라노 건축가 파가노(Pagano)에 의해 모던한 계획안도 제출되었지만, 차츰 피아첸티니의 주도하에 1937년 기본 도시계획도면이 제출되고, 결국 피아첸티니의 최종계획안에 의해 신도시(E42)가 완성되었다.<sup>17)</sup>

이 신도시의 도시구조는 남북 도로축인 비아 임페리알레(Via Imperiale)를 중심으로 축선상에 '이탈리아 문명관<sup>18)</sup>'이 위치하며 좌우

16) 정영철·윤재희 역, K. Frampton 저, 『현대건축사(II)』, 세진사, pp.384~387, 1988

17) 무솔리니는 1937년 1월 5일 15명의 건축가와 도시설계가 중에 파가노(Pagano), 피아첸티니(Piacentini), 비에티(Viotti), 로씨(Rossi) 그리고 피치나토(Piccinato)를 신도시(E42)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신도시(E42) 계획안이 시작되었다. 1차안은 파가노의 주축이 되어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2차안과 최종안(3차)은 피아첸티니가 주도하여 계획안을 제출한다.

18) Palazzo della civiltà'는 1935년 밀라노 건축가탐인 BBPR에 의해 고대 로마시대부터 무솔리니정권까지의 중요 이탈리아 문명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는데, '만국박람회' 이후 박물관으로 사용될 계획이었다. 건물의 기능으로 보아 '이탈리아 문명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김정호 외1명, 현재건축사조개

에 대칭적인 건물군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신도시(E42)는 1937년 이후 연속된 몇 개의 현상설계<sup>19)</sup>에 의해 체계적인 도시구조를 완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피아첸티니의 주도하에 당선된 고전주의 건축물과 더불어 고전적 기하학적 배치로 도시가 점차 정비되면서, 1953년에 현재의 도시구조로 완성된다.



<그림 5> 피아첸티니, E42, 모형사진, 1938.

피아첸티니는 전체 도시를 고대 로마건축의 매스와 선의 개념에 의거해서 계획하여, 전형적인 고전적이고 기념비적인 감각으로 이 도시 계획을 제안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전형적인 파시즘 도시계획의 예로 완성되었으며, 현재까지 파시즘시대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그림5 참조)

피아첸티니는 고대 로마건축을 바탕으로 한 고전주의건축 경향을 내세워, 모더니스트인 리베라의 당선작을 수정함은 물론, 이 현상설계를 전후하는 일련의 현상설계에 당선된 모든 계획안들의 수정을 강요할 정도로 도시계획 전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20)</sup>

관(1999) 기문당, 194쪽의 그림 163에서 '이탈리아 문화회관'으로 번역하고 있다.

19) 1937년에서 1939년까지 신도시(E42)에 로마만국박람회 를 위해 중요한 5개의 현상설계가 공모되었다.

1) il Palazzo dei Ricevimenti e dei Congressi (1937.6.20-9.30), 2) il Palazzo della Civilita' italiana (1937.7.15-10.15), 3) il concorso per la Piazza Imperiale (1937.9.20-12.20), 4) il concorso per la piazza delle Forze armate (1937.10.25-1938.1.31), 5) il Palazzo dell'Acqua e delle Luce (1939. 2.1-1939.3.15)

20) Mario Lupano, Lotus international, Electa, 1990, p.13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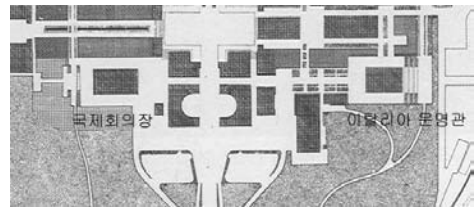


<그림 6> 'E42 건축사무실'에 비치된 모형, 1938.

### 3. 현상설계안의 분석

#### 3-1. 현상설계 참가작 분석

1937년 이 신도시(E42)에 들어갈 '국제회의장', '이탈리아 문명관', '황제의 광장', '국방부 건물'<sup>21)</sup> 등 4개의 대규모 현상설계가 시행되었다. 그 중, '국제회의장 현상설계'는 파시즘시대의 중요한 현상설계이면서, 신도시(E42)내에 건설된 유일한 모더니즘건축으로 그 의미가 크다.



<그림 7> 신도시(E42) 계획안, 1938

그림 7의 도면<sup>22)</sup>을 보면, 신도시의 중심축인 '비아 임페리알레'의 좌우에 '국제회의의장'과 '이탈리아 문명관'이 위치해 있어, 1938년 신도시 계획안에서의 '국제회의의장'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도시계획상 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탈리아 문명관'의 계획을 고려해서, 리베라의 '국제회의의장'은 피아첸티니의 고전주의건축 맥락의 수용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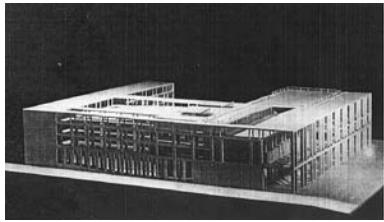
따라서, '국제회의의장' 현상설계의 심사위원들<sup>23)</sup>은 이탈리아 파시즘정권의 중요 인물들로

21) il Palazzo dei Congressi, il Palazzo della Civilita', la Piazza Imperiale, l'edificio delle Forze Armate,

22) 이탈리아 중앙문서고(Archivio centrale dello stato), EUR의 disegni S. 17/9의 부분 발췌



<그림 8> Adriano팀, 2차 제출안, 그래픽작업, 2008



<그림 9> Cattaneo팀, 2차 제출안, 모형사진, 1937



<그림 10> Paniconi팀, 2차 제출안, 1937

구성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전형적인 고전주의경향의 건축가로 고전주의 계획안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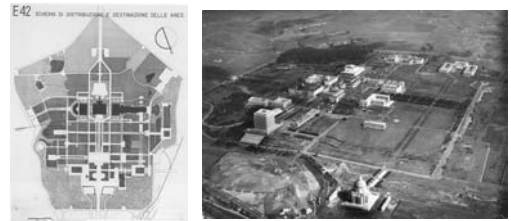
현상공고에 예정이 없던 2차전 현상설계가 실시되는데, 1차전에 선발된 7팀<sup>25)</sup>이 참가하게 되었다. 선발된 7팀 중에 아드리아노(Adriano)

23) 위원장:C.E.Oppo, 위원들:A. Foschini, G. Muzio, L. Piaccinato, A. Tavolini, E. Del Debbio, G. Caffarelli

24) 이 현상설계에는 신도시(E42)의 최초의 공모전으로 총 41팀이 참가하였다. 1937년 6월 20일 공모하여, 1937년 9월 20일 12시에 마감하였다. 당선작이 결정되지 않아, 선정된 5작품에 대해 추가 계획안을 제출을 요구하여, 1937년 12월 31일까지 심사를 연장하고, 1938년 2월 18일 아달베르토 리베라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된다.

25)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현상설계는 당선작없이 1.그룹 Adriano-Bellanti-Monaco-Luccichenti, 2.그룹 Aschieri-Bernardini-Peressutti, 3.그룹 P. Lombardi-G. Franzi, 4.그룹 M. Paniconi-G. Pediconi, 5.그룹 Fariello-Muratori-Quaroni, 6.개인 A. Libera, 7.그룹 Cattaneo-Lingeri-Terragni들 7개팀이 2차전 현상설계에 참가할 자격을 가졌다.

팀<sup>26)</sup>과 테라니가 속한 카타네오(Cattaneo)팀은 전형적인 이탈리아합리주의건축의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나머지 계획안들은 ‘국제주의건축’의 건축스타일을 인식할 수 있으나, 대체로 파니코니(Paniconi)팀의 경우와 같이 국제회의장의 기능적인 측면을 기술적으로 잘 해결한 평면을 제안하면서도, 이탈리아 고전주의건축의 스타일을 배제하지 못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경우로, 리베라의 계획안은 1차, 2차, 최종 시공단계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아드리아노팀과 카타네오팀과 비슷한 모더니스트의 건축개념에서 출발하여 점차 고전주의적 건축을 수용해 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최종안 계획안1939, 항공사진, 1953, (www.wikipedi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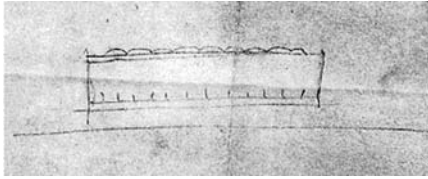
그림 11에서 피아첸티니가 1939년 ‘E42 건축사무실’에 제출한 최종 신도시계획안을 보면, 신도시(E42) 도시계획은 고전주의 도시적 관점을 견지하였으므로 ‘비아 임페리알레’ 좌우에 위치한 ‘이탈리아 문명관’의 고전주의적 건축스타일에 맞추어 리베라의 ‘국제회의장’ 계획안을 수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후의 내용에서는 리베라의 현상설계의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최초 현상공모에 제출된 계획안을 1차 설계안으로 명하고, 재심사에 제출된 계획안을 2차 설계안으로, 시공단계에서 피아첸티니에 의해 수정된 계획안을 ‘시공과정’으로 명하였다.

26) 그림 7은 2차전 제출안의 그래픽작업 이미지 (Fondazione Bruno Zevi, Una guida all’architettura moderna EUR, p.94 2008)

3-2. 1차 설계안 분석

리베라의 스케치는 로마 신도시(E42)에 위치한 'E42 자료실'<sup>27)</sup>과 리베라 사후 출판된 그의 작품집에 일부 소개되어 있다. 현재 파리에 소재한 '퐁피두센터 리베라 문서고'에는 1차 전 설계안에서 관해 단지 A4 크기 종이 위에 남겨진 스케치 2장과 트레이싱지 위에 그린 스케치 1장만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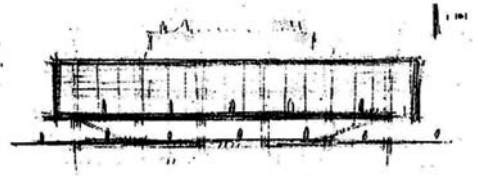


<그림 12 >리베라,개념스케치, 1차-1, 1937

그림 12 스케치는 트레이싱지에 남아 있는 일부분으로 리베라의 초기 개념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면으로 기울어진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현상공모의 대상 대지는 직관(intuition)적으로 '떠있는 투명한 사각박스'로 건축개념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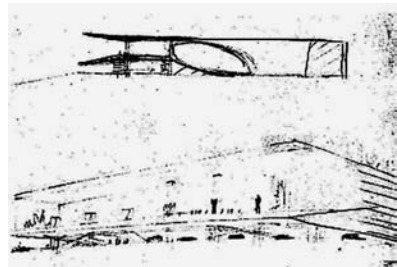
초기개념의 분명함과 단순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출발은 무솔리니가 주장한 '위대한 고대로마의 계승'을 주장하는 신도시(E42)에 건설될 작품의 개념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sup>28)</sup> 리베라의 1차 계획안은 '떠있는 투명한 사각박스'개념에서 계획된 것은 '국제주의건축'<sup>29)</sup>의 모더니스트의 건축적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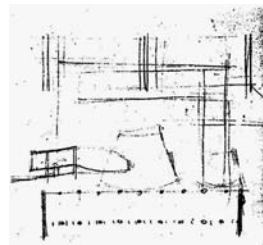


<그림 13 > 리베라,입면스케치,1차전-2,1937

그림 13, 12는 스케치를 발전시킨 것으로 '떠 있는 투명한 박스'형태 개념의 이미지가 명쾌하게 남아있으며,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떠 있는 투명한 박스'에 접근을 위해 하단 좌우에 연결 계단을 설치하여 물리적인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스케치는 초기 개념의 형식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 리베라, 스케치, 1차-3, 1937



<그림 15> 리베라, 스케치, 1차-4, 1937

그림 14 스케치는 속도감 있게 달려온 구가 '떠 있는 사각박스' 안의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서 타원형으로 변형된 모습을 개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리베라는 국제회의장의 대공간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논리적 개념해석을 통해 새로운 3차원적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특히, 접

기 신도시(E42) 도시계획에서 르꼬르뷔제의 도시계획과 유사한 계획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르꼬르뷔제와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27) ACS(Archivio Centrale dello Stato) [archivi.benicultural.it/ACS/comerag.html](http://archivi.benicultural.it/ACS/comerag.html) (2008.03.17)

28) 신도시(E42)의 최초의 현상설계인 '국제회의장'의 당선작은, '이탈리아 문명관' 현상설계 당선작과 함께 1938년 1월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진다. (각주 38 참조)

29) 본 논문의 '국제주의건축'은 르꼬르뷔제의 도시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국제주의건축'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초기 이탈리아 합리주의건축가들은 르꼬르뷔제와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37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도시(E42)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1934년 5월과 6월에 미술비평가인 바르디(Piero Maria Bardi)는 '예술과 문학의 모임'에 르꼬르뷔제를 초청하는 것과 1937년 파가노(G. Pagano)의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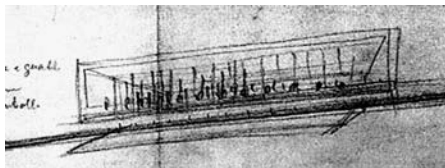
근 가능한 2개의 X자형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5 스케치에서, 평면 스케치 부분을 살펴보면, 좌우 벽체 사이를 통과하면 물체가 부채꼴 형태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부채꼴 모양의 국제회의장을 둘러싼 회랑에 의해 중정을 형성하고, 회랑으로부터 회의장의 규모와 매스를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풍경을 만들고 있다.

그림 15 스케치와 비교하여 그림 16 스케치는 전반적인 형태와 공간구성이 구체화되어 있다. 사각형의 테두리에 각 기능별 건물이 배치되면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리셉션 홀은 외부공간(테라스)과 연결되어 홀의 기능을 극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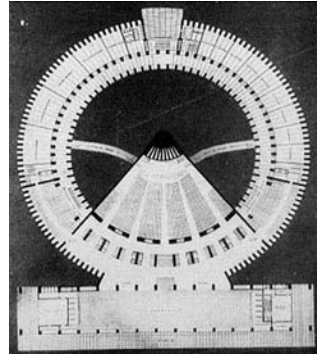
그림 16의 회랑은 외곽을 연결하면서 중정을 조성하였으며, 회의장 북쪽에 무대장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었다. 특히, 회랑 내부에 형성된 중정은 그림 15 스케치에 비해 극히 작은 규모로 축소되면서 합리적인 공간배치가 되었다.



<그림 17> 리베라, 입면스케치, 1차-5,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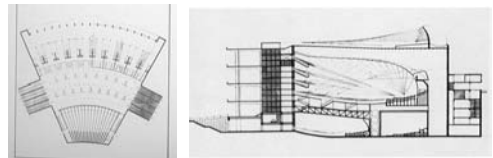
그림 17 스케치는 최종 제출안과 유사한 것으로 이 건물의 기본개념인 ‘떠 있는 투명한 박스’의 입면을 유지하면서, 대형 계단을 전면부에 설치하여 대지와 건물간의 높이차를 극복하였다. 초기 건축개념인 ‘떠 있는 투명한 박스’

개념을 발전시켜 ‘관통된 박스’형태로 회의장시설의 접근성이 극대화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공간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림 18> 리베라, 상층부, 1차 제출안-1, 1937

그림 18 도면은 사각과 원을 이용한 구성으로 회랑도 반지모양 형태로 변경되었던, 기존 스케치안의 평면과 입면형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리베라는, 1935년 로마음악당 현상설계<sup>30)</sup>에서 제출한 음악당(그림 19)과 ‘국제회의장’의 대회의실은 유사한 평면과 단면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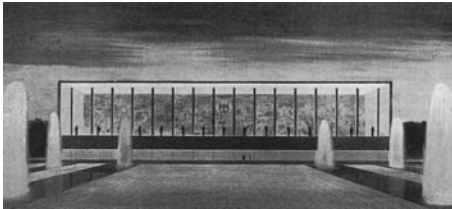
<그림 19> 리베라, 로마음악당현상설계, 평면 및 단면, 1935

기하학적 측면에서 반지모양의 회랑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각형형태에서 원형형태로 건축개념을 전환하여 찾아낸 해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기존의 모더니스트의 사각형 형태를 이용한 공간구성과 다른, 그 당시의 건축경향에서 볼 수 없었던 개성적인 건축언어로 새로운 형태의 리셉션 홀과 회의장의 결합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30) Libera, Progetto per l'auditorium a Roma, Concorso, 1935 M. De Renzi와 G. Vaccaro와 함께



그림 20의 1차 최종 제출안은 구체적 건축 개념에서 출발하여 상징적인 구체화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최종 제출안의 16개의 세장한 기둥은 고전주의 기둥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기둥 형식을 취하면서도, 엄격한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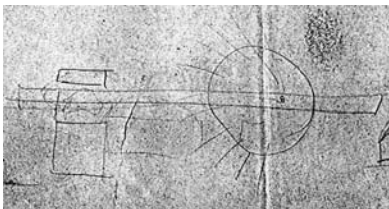


<그림 20> 리베라, 정면, 1차 제출안-2, 1937

최종 결과물은 건축공간의 실용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비례의 조화, 매스의 장대함, 볼륨에 관계된 빛과 그림자의 균형적 관계 등 이탈리아 모더니스트의 건축적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 3-3. 2차 설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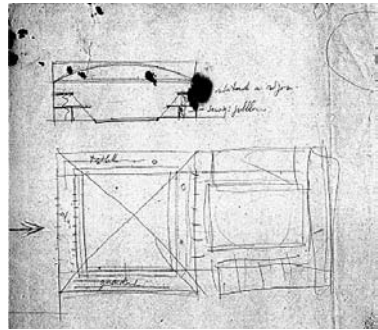
현상공모 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2차전의 작업기간은 한달로 제한되는데, 설계규모에 비해 작업기간이 짧은 것이었다. 현재 2차전과 관련된 자료들<sup>31)</sup> 중 스케치 4장과 청사진 설계도면 일부가 ‘퐁피두센터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건축설계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스케치 4장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림 21> 리베라, 2차 계획안-1,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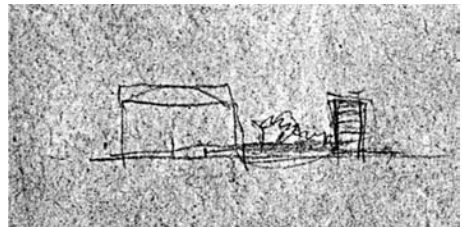
31) 리베라와 관련된 자료는 후순에 의해 보관된 후, 사후 출판된 그의 작품집 편집과정, 최종적으로 파리 퐁피두센터에 기증전에 상당부분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그림 작품들은 퐁피두센터의 기증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21 스케치는 2차전 도면속에 남아있는 작은 스케치로, 1차전 최종 계획안의 연관성을 회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각박스형의 리셉션 홀과 도넛 형태의 회랑은 그의 1차전 최종 제출안과 동일하다. 국제 회의장과 리셉션 홀의 기능의 연계성을 두고, 이질적 건축공간이 하나의 막대기에 의해 연결되는 표현은 1차전 건축설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 22> 리베라, 스케치, 2차 계획안-2, 1937

그림 22 스케치에서는 진입로부터 접근<sup>32)</sup>하는 경우, 전면에 정사각형의 대공간인 리셉션 홀을 통과한 후, 국제회의장에 접근가능하게 하였다. 건물의 공간구성은 1차전 건축개념과 동일하나, 사각형 배치를 유지하기 위해 중정을 회의장 주변에 위치시켰다. 정사각형태의 리셉션홀 배치는 1차전의 ‘떠 있는 박스’의 개념과 다른, 새로운 형태적 해결방법(중층 개방형 중정)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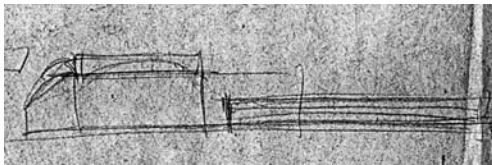
<그림 23> 리베라, 스케치, 2차계획안-3, 1937

32) 리베라는 스케치에서 화살표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3 스케치에서는 그림 22스케치와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시각적으로 고전주의 건축언어인 보올트 구조<sup>33)</sup>가 독립된 형태로 외부 입면형태에 중요한 요소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리베라의 2차 계획안에서 리셉션 홀로 이용되는 사각박스 속에 포함된 ‘변형 펜덴티브 보올트’를 전면에 위치시키는 것은, 시각적으로 고전주의적 건축스타일이 계획안의 전면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sup>34)</sup> 이는 피아첸티나가 신도시(E42)의 중심도로인 황제의 길(Via Imperiale)의 좌우에 위치한 ‘이탈리아 문명관’과 ‘국제회의장’의 현상공모에 미쳤음을 짐작케 한다.

후면에 위치한 국제회의장 지붕은 경사테라스를 설치하는 의도가 표현되어 있고, 특히,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리셉션 홀 높이와 비슷하게 높였으나, 전면의 고전주의적 건축언어와 무관한 모더니스트의 건



<그림 24> 리베라, 스케치, 2차 계획안-4, 1937

33) ‘국제회의장’의 2차전 현상설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문명관’의 현상설계는 마감되었다. 특히, 두 현상설계의 결과는 1938년 1월에 비공식적으로 당선작이 알려지게 과정으로 보아, ‘신도시(E42) 로마만국박람회 법안’의 최종 결정자인 치니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아첸티나는 1938년 1월 25일 치니(Cini)의 고전주의 도시건축의 취향을 함축한 신도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 (Michele Vajuso, E42 la gestione di un progetto complesso, Palombi Editori, Roma, 2007, p.112 참조 )

34) 고대 로마의 대표적 건물 중에 하나인 ‘콜로세움’과 ‘판테온’과 관련된 해석은 신도시(E42)의 현상설계 공모에서 중요한 이슈였을 가능성이 높다. 신도시(E42)의 중요한 두개 현상설계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문명관’은 콜로세움을 해석한 것과, ‘국제회의장’은 판테온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적 의도를 느낄 수 있다. 리베라는 판테온의 ‘펜덴티브 돔’의 상징성을 통해 ‘국제회의장’의 중요성은 물론, 고전주의건축과의 교감을 표시하고 있다.

축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24 스케치는 그림 23 스케치에 비교해 보면, 기존의 변형 펜덴티브 보올트형태<sup>35)</sup> 전면부에 추가적인 경사지붕의 진입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으로 후면의 ‘변형 펜덴티브 보올트’의 정면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기능에 따라, 리셉션홀과 회의장을 분리시켜 배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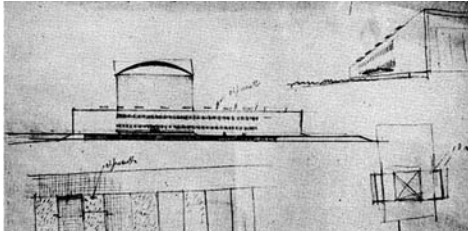
<그림 25> 리베라, 스케치, 2차 계획안-5, 1937

그림 25 스케치는 최종안과 유사한 도면으로 회의장건물과 리셉션홀 건물이 단일건물로 계획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변형 펜덴티브 보올트’가 전면부에서 사라지면서, 사각박스 상부에 새로운 사각박스를 돌출시키고 있다. 1차 계획안의 ‘떠 있는 박스’개념과 전면에 투명한 벽체(유리 커튼 월)를 설치하여 ‘국제주의건축’의 모더니스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국제회의장’계획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시도로 판단된다. 전면의 함몰된 부분은 기존의 그의 현상설계안<sup>36)</sup>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의 독특한 건축언어이다.

그림 26 스케치는 최종안에 근접한 건물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25 스케치에 나타났던 사각박스 형태 리셉션 홀은 ‘변형 펜덴티브 지붕’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그림 27의 193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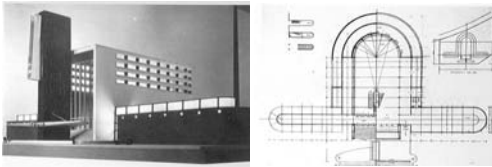
35) 현재 ‘신도시 문서고(ACS)’ 안내에서 고대 유적인 판테온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의 원본 스케치에는 직접적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www. romaeur.it 의 patrimonio & progetti부분 중에서 palazzo dei congressi 안내부분을 참조)

36) 리베라, 아프리카리아의 도시계획 현상설계안, 주정부 청사 입면, 1937 (그림 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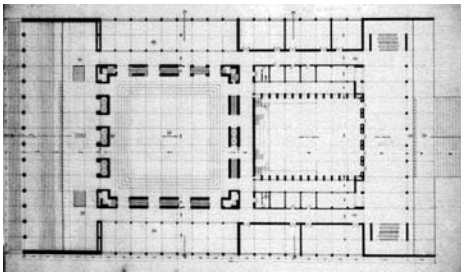
<그림 26> 리베라, 스케치, 2차 계획안-6, 1937

‘시카고 국제박람회 이탈리아관 계획안’<sup>37)</sup>과 동일하게, 건물의 좌우에 캔틸레버 차양을 이용하여 비행기 좌우 날개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가 되게 하였다.



<그림 27> 리베라, 시카고국제박람회 이탈리아관, 1933

1차전의 ‘떠 있는 부상한 박스’ 개념이 ‘하늘을 나는 기계’<sup>38)</sup> 개념으로 건축개념이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7에는 이 당시 ‘국제주의건축’의 모더니즘 표현 방법으로 ‘운동감’ 개념이 건축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8> 리베라, 1층 평면, 2차제출안-1,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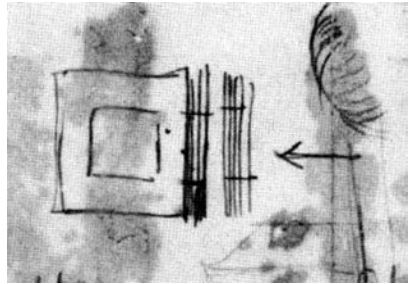
그림 28의 도면을 살펴보면, 1차전 도면에서 볼 수 있던 원형 중정을 둘러싼 회의장의 시설과 기능이 축소되어, 2차전 제출안에서는 회

37) Padiglione italiano all'Esposizione mondiale di Chicago, Concorso, 1933, M. De Renzi와 함께

38) 그 당시 철도, 비행기 등은 근대문화 산물로 모더니스트들이 즐겨 차용하여 사용하던 건축물의 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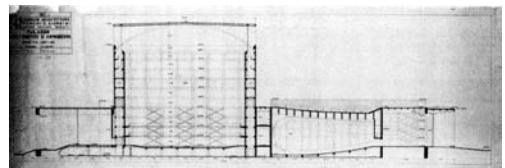
의장을 둘러싼 회랑부분이 회의장의 보조공간(부속시설)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정은 사라졌다. 즉, 1차전과 비교해서, 2차전의 설계안은 건축개념, 공간구성방법, 건축언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2차전 제출안은 전면과 배면에 동일하게, 계단과 세장한 열주로 투명한 직사각형 박스가 입면을 구성하고, 리셉션 홀은 ‘정사각형’ 판테온을 회상시키는 형태로 고전주의건축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9> 케리니의 스케치, 이탈리아 문명관, 1937

그림 29의 케리니(G. Guerrini)의 ‘이탈리아 문명관’<sup>39)</sup> 초기 스케치는 리베라의 초기스케치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결과물인 건축형태는 전혀 다르다. 실질적으로, 리베라의 모던한 건축개념도 1차와 2차 공모과정을 거치면서 고전주의 건축언어의 일부를 수용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림 30> 리베라, 종단면, 2차전 제출안-2, 1937

그림 30의 종단면을 보면, 1차전의 초기스케

39) G. Guerrini의 초기 스케치, 케리니가 대표건축가(Capogruppo)로 활동하였으며, 라 파둘라는 신도시(E42)의 주요 건축가인 피아첸티니의 로마대학의 제자로 이 현상설계에 참가했다. (Plazzo della Civilita' italiana, F.B. La Palula 문서고, 1937)

치의 단면에서 볼 수 있는 ‘떠 있는 박스’의 개념은 전면 진입부분에 미미한 흔적만 남아있다. 동시에, 사각형의 판테온 형태로 유추된 리셉션 홀의 존재는 고대 로마건축과의 교감으로 탄생한 하나의 고전주의 건축언어의 결과물이다. ‘국제회의장’의 상부 야외공연장은 현상 공모 규정 5항의 나오는 요구된 공간은 아니지만, 리베라는 ‘국제회의장’의 상부의 완만한 경사지붕을 이용한 창의적인 외부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리베라는 도로 맞은편의 ‘이탈리아 문명관’과 함께, 신도시(E42)의 고전주의적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축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무대장치로 이 건물의 외관을 고려하였다. 즉, 리베라는 이탈리아 모더니스트로써, 근대적 건축 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2차 제출안에서는 이 신도시(E42)에 고대 로마도시와의 연관성 속에 조성된 도시환경을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리베라, 정면투시도, 2차제출안-3, 1937

그림 31의 정면투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베라는 그의 진보적인 설계작업을 통해, 근대성을 추구하는 ‘국제주의건축’의 모더니스트의 설계방법을 이용하였으나, 고전주의적 도시·건축 환경을 무시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테라니는 1938년 1월에 비공식적으로 현상 설계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리베라의 당선작에 대해, ‘합리주의’와 ‘신고전주의’의 타협의 혼탁한 결과<sup>40)</sup>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그 당시 로마 신도시(E42) 계획단계에서부터 관여했던 리베라는 신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피아첸티니의 영향력 등의 건축설계 외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3-4. 시공과정의 피아첸티니 역할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은 1920년대 자국의 독특한 정치적 분위기와 국제조류사이에서 새로운 건축양식을 창조하기 위한 일단의 건축가들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들은 끊임 없이 전통의 재해석과 근대적 수용의 문제를 탐구하였다.<sup>41)</sup>



<그림 32> 리베라, 투시도, 2차 제출안-4, 1937

이러한 맥락에서 리베라가 1차와 2차의 공모전을 통해, 모더니스트의 근대성이 강한 건축개념은 고전주의적 도시구조와 절충하면서 설계를 마무리한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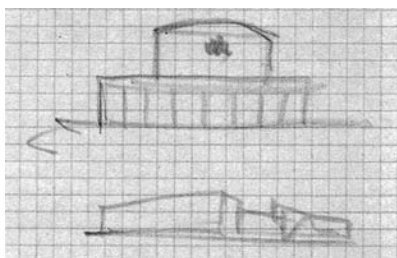
이 건물은 1938년 시공을 시작한 후, 파시즘정권의 몰락과 함께, 1943년 시공이 중단되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군의 점령에 의하여 내부가 심각하게 파괴되는데, 1952년 대수선 공사가 시작되어 연인원 4300명과 6억 1000만 리라가 투입되고,<sup>42)</sup> 마침내 1954년에

40) un ibrido risultato di compromesso tra il neoclassico e il razionale: un vero pasticcio che non torna certo ad onore di chi l'ha fatto e di chi l'ha scelto. (R. Mariani, E42, I concorsi, Utopia e scenario del regime, Venezia, 1987.)

41) 김종현, 앞 논문, 81쪽, 1997

42) Il palazzo era iniziata nel 1938 dal progetto dell'architetto Libera, la costruzione fu poi sospesa nel

완공되었다. 건물의 시공과정은 복잡하지만, 이  
 미, 1943년 시공이 중단될 당시에 건물의 구조  
 체 공사는 마무리 단계였으며, 고전주의 건축  
 가 피아첸티네에 의하여 계획된 신도시(E42)  
 전체와 어울리게 설계된 본 건물의 공사가 상  
 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된 것이었다.



<그림 33> 피아첸티네, 스케치-1,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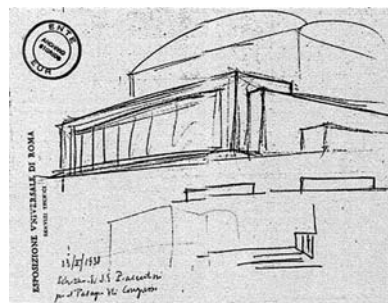
그림 33 스케치43)는 국제회의장 시공과정에서 피아첸티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건물 정면은 리베라의 최종안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데,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리베라의 리셉션 홀에서 돌출된 ‘변형 펜네티브’ 박스부분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피아첸티네는 ‘이탈리아 문명관’과 비교하여 수평적인 강조된 형태를 취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예이다. 즉, 그는 고대 로마 신전건축의 정면성을 강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그의 고전건축을 단순화시킨 ‘건축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4 스케치는 전면부(진입부)를 강조한 것으로, 이 피아첸티네의 스케치44)는 ‘국제회

의장’ 전면부를 고대신전의 진입부 계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리베라의 리셉션 홀 상부의 ‘변형 펜네티브구조’는 고전주의 건축가인 피아첸티네에게도 수용 가능한 건축언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4> 피아첸티네, 스케치-2, 1938년 2월 23일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리베라는 ‘국제회의장’ 설계안을 통해, 이탈리아 합리주의건축의 전통의 재해석과 근대적 수용방법에 관해, 대표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5> 리베라, 시공현장사진, 1940년경

최종적으로, 그림 35의 준공전 사진45)을 살펴보면, 고전주의적 건축언어의 특징인 열주가 있는 좌우 대칭의 입면과 리셉션 홀의 벽의 장식조각46)은 고전주의 건축가인 피아첸티네의 건축적 의도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1943, quando erano stati eseguiti tutti I lavori murari e di rifinitura, ad eccezione dell'interno dei dei saloni centrali e di parte degli impianti speciali. Gravi furono I danni arrecati, dai corpi militari durante l'occupazione tedesca e alleata, tra il 1943 e il 1945: 신문 'IL GLOBO' 사설, 1957년 2월 26일, 3면.

43) Mario Lupano, Lotus international, Electa, 1990, p.134 재인용

44) Mario Lupano, Lotus international, Electa, 1990, p.134 재인용

45) AA.VV., 『Adalberto Libera -Opera completa-』, Milano, 160쪽,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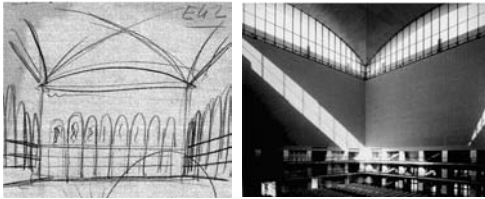
46) 벽면 장식은 1943년 파쇼정권의 몰락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그림 36> 리베라, 정면, 국제회의장, 1960년대

그림 36의 사진<sup>47)</sup>에서 볼 수 있듯이, 피아첸티니의 관심이 적은 부분인, 신도시(E42)의 축선인 ‘비아 임페리알레’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의 배면은 정면과 달리, 리베라의 1차전 계획안의 연속선상에서 모더니스트의 건축언어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건물의 배면과 정면은 고전주의와 모더니즘의 이원적 형태로 건축물 속에 표현되었다.

‘떠 있는 박스’ 개념은 근대적 건축재료인 가벼운 재료(철, 유리), 무거운 매스(시멘트, 대리석, 돌), 솔리드(solid)-보이드(Void)기법 이용을 통하여 ‘유리 커튼 월’의 모던한 입면구성을 완성하게 된다.



<그림 37> 피아첸티니, 스케치-3, 1960년 사진

그림 37의 피아첸티니의 리셉션 홀 내부스케치와 사진<sup>48)</sup>은 국제회의장 시공과정에서 그의 고전주의 건축 경향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예이다.

최종 완공된 건물은 피아첸티니의 의도와 달리, 고전적 건축언어인 연속된 아치모양의 벽체장식이 사라졌다. 따라서, 리베라의 건축적

47) 사진, C. Dardi 문서고, 베네치아건축대학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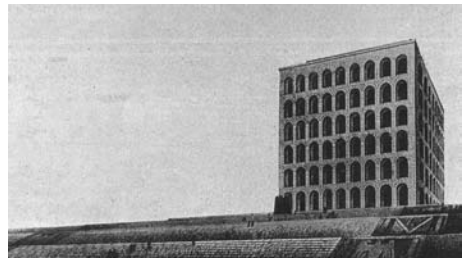
48) C. Dardi 문서고, 앞 사진과 동일

의도에 따라 모던함, 선의 간결함, 조형적 감각, 비례 인식, 근대적 공간의 미적 체험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 4. 건축개념의 형식화분석

리베라의 ‘국제회의장’ 초기 건축개념인 ‘떠 있는 투명한 사각박스’는 전체 계획안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건축개념의 형식화과정<sup>49)</sup>은 신도시의 고전주의적 도시건축의 물리적 환경과 건축현상설계의 현실적 문제<sup>50)</sup>에 따라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피아첸티니의 주도 하에 건설된 신도시(E42)의 고전주의건축의 대표적 건물인 ‘이탈리아 문명관’과 비교해보면, 리베라의 ‘국제회의장’의 근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케리니 외 2명, 이탈리아 문명관 최종제출안(당선작), 1937/38

피아첸티니의 건축적 스타일과 일치하는 ‘이탈리아 문명관’은 전형적인 고전건축의 인용에 의해 조형되어진 기념비적 건물이며, ‘국제회의장’은 고대 로마건축의 요소<sup>51)</sup>들의 재생에 의해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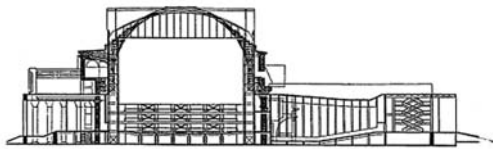
49) 형식화는 정교화된 이론이 완성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내부적으로 정의되고 계층화된 개념체를 가지고 있는 이미 정교화된 이론의 존재를 전제한다. (천기석, 김두한 공역, 기호학용어사전, 민성사, 144쪽, 1988.)

50) ‘국제회의장’현상설계에 이어 연속적으로 4개의 현상설계에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모 규정 12항에 의하면, ‘건축위원회’는 건축가와 상의없이 작품의 임의수정도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현상공모의 규정 12항을 내용 참조)

51) 고대로마의 경기장인 콜로세움으로부터 유추한 사

현된 고전적 건축언어의 단순화의 형태를 구현하고 있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달 파브로<sup>52)</sup>는 ‘국제회의장’과 ‘판테온’의 공간규모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리베라의 ‘판테온’에 대한 해석은 형태모방의 차원이 아닌, 전통에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림 39> 달 파브로, 국제회의장과 판테온 규모 비교분석.

2차 계획안의 ‘변형 펜던티브 지붕’은 현상 설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피아첸티니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나, 그의 대학시절의 각종 스케치와 고대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판테온에 대한 새로운 형태접근은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의 그 당시 ‘국제주의건축’과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림 40> 리베라, 아피릴리아 도시계획, 1936

리베라가 참가한 일련의 도시계획 현상설계<sup>53)</sup>와 건축현상설계에서 즐겨 사용한 건축언어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1928년의 이탈리아 로마에 개최한 제 1회 합리주의건축 전시회<sup>54)</sup>나 그림 41의 로마 ‘파시스당 현상설계’의 계

각 박스형의 콜로세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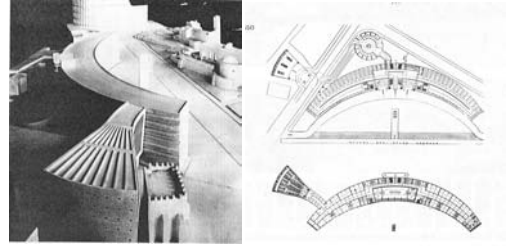
52) Armando dal Fabbro, 「Regole e procedure compositive nelle grandi architettura di Terragni」, 박사논문, 베네치아건축대학, 1990

53) Concorso nazionale per Progetto per il piano di Aprilia(Latina), 1936.

54) la prima Esposizione di Architettura Razionale in Roma, 1928.

획안<sup>55)</sup>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축언어의 특징을 ‘국제회의장’의 설계에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리베라의 건축언어는 파시즘시대의 의미와 상징을 형태적 요소로 구체화하지만 철저하게 기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건축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41> 리베라, 파시스당현상설계, 1차, 1933~1934

1929년 로마 건축대학을 졸업한 리베라의 대학시절의 스케치(그림 3)는 1937년 ‘국제회의장’ 현상설계에 참가한 리베라에게 상당한 건축적 영감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신도시(E42)의 첫 번째 현상설계인 ‘국제회의장’에서 고대로마 건축의 재해석은 과거의 기념비적인 건축물과의 물리적 관계설정은 물론,역사성의 구현이 형태모방으로 전락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와 전통에 부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더니스트의 역사성 해석방법을 통해, 고대 로마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려는 파시스당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면서도 모더니스트다운 공간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42의 사진<sup>56)</sup>을 통해 건물의 외부마감을 살펴보면, 대리석 마감재료의 단순화 그리고 엄격한 비례에 의한 유리의 사용 등을 사용함으로써, 고전주의자들의 고대양식 수용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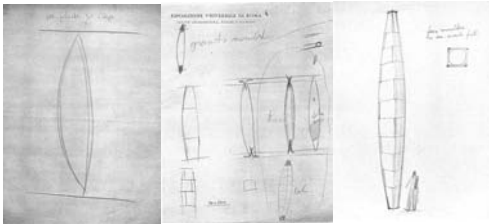
55) Progetto per il palazzo del Littorio a Roma, Concorso di 1 grado, 1933~1934

56) 사진, C. Dardi 문서고, 베네치아건축대학 도서관



<그림 42> 리베라, 배면, 1960년대

리베라가 남긴 일련의 스케치에는, 이탈리아 모더니즘<sup>57)</sup>의 근대성(Modernity)과 역사성(Historicity)<sup>58)</sup>에 대한 해석에 관한 건축가의 고뇌가 표현되어 있다. 단편적인 예로, 전면의 기둥에 관련된 몇몇 스케치에서 그의 모더니스트로서의 새로운 건축언어 개발 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리베라의 새로운 형태의 엔타시스 기둥 제안은 완공된 건물의 전면 기둥은 고전주의적 비례와 안정된 형태의 기둥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아첸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43> 리베라, 스케치, 전면 열주 디자인

그림 43의 일련의 스케치에 의하면, 리베라

는 단순한 기둥<sup>59)</sup>과 보로 구성된 모던한 입면 구성을 위해 고대 로마 신전건축의 열주와 동일한 배치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기둥의 형태는 단순화하고 변형시켜 새로운 건축언어를 완성하였다.

그림 43의 시도는 그림 33의 전면 기둥과 비교해보면, 리베라 기둥디자인의 독창성을 알 수 있다. 불행스럽게도, 일련의 새로운 형태의 기둥디자인은 실행되지 못하고, 결국 피아첸티의 의도대로 고전주의적인 기둥형태로 시공되었다.

리베라의 ‘국제회의장’ 전면은 신도시의 고전주의적 도시공간구성과 어울리는 고전주의적 입면형태를 취하는 반면, 그림 44와 그림 45의 ‘국제회의장’의 배면<sup>60)</sup>에서는 그의 초기 스케치와 유사한 모던한 입면형태로 완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리베라, 국제회의장, 배면 진입부사진<sup>1)</sup>

건축디자인의 외적 환경에 의해, 파시즘시대의 모더니스트 건축이 직면했던, ‘근대성’과 ‘역사성’의 복합적 상황을 간명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이탈리아 합리주의건축가들이

57) 근대적 예술가, 건축가들의 모더니즘은 근대성에 대한 문화적인 탐구였으며, 서구의 오랜 인본주의적 전통을 계승한 합리적 근대성과 계몽의 어두운 측면을 비판하는 예술운동(강혁, 「한국 현대건축에서 ‘근대(성)’의 개념과 성격」, 건축역사연구 제2권2호, 109쪽, 1993.)

58) 건축에서 역사성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역사상 어느 특정한 시대의 건축을 이상적인 모범으로 삼아, 일정한 규범적 특성과 기준체계, 설계기준들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고전주의적인 입장을 의미한다. (김의용,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의 역사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4호 통권 174호, 118쪽, 2003.)

59) AA.VV., 『Adalberto Libera -Opera completa-』, Milano, 159쪽, 1989.

60) www.palazzocongressi.it (2009.07.01)



주장한 대로, ‘국제주의건축’과 다른, 이탈리아



<그림 45> 리베라, 국제회의장 배면, 전경사진, 2006

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 탄생의 불가피성을 느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로마신도시의 중요한 건축가 피아첸티니의 영향력 속에서도, 모더니스트의 유일한 건축물로 ‘국제회의장’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모던한 형태, 기능적 공간구성은 물론, 기념비적 건물로 파시즘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원인은 1차전의 초기의 건축개념의 지속적인 형식화과정을 통한 그의 건축개념의 연속적인 개발의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건축가 리베라의 원본 스케치는 물론, 신도시(E42) 국제회의장의 관련 자료지 종합 분석·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파리 ‘퐁피두센터의 문서고’에 소장된 리베라의 ‘국제회의장’ 원본 스케치자료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건축디자인의 방법으로써 이탈리아 근대건축의 역사성의 수용 과정이 모더니스트 리베라의 건축개념의 형식화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전주의 건축가의 역사성 해석방법과 달리, 모더니스트인 리베라의 ‘국제회의장’ 계획안의 분석을 통하여, 직관력과 상상력의 결과물인 ‘떠있는 투명한 사각박스’ 건축개념의

형식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건축언어를 개발하면서 그의 건축스타일을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1차, 2차 제출안, 시공과정을 분석해보면, 신도시(E42)의 주도적 건축가 피아첸티니의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리베라의 대학시절 연구한 고대 로마건축의 역사성 재해석 방법을 통해, ‘국제회의장’의 전면에 고전주의적 건축 입면, 후면의 모던한 입면을 가지는 건물로 탄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제회의장’을 관련 스케치를 분석하여, 이탈리아 합리주의건축의 물리적 환경의 이해는 물론, 모던한 건축개념의 형식화과정을 밝혀냄으로써, 근대 건축설계의 발전적 전개과정을 실증적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Adachiara Zevi, 『una guida all'architettura moderna dell'EUR』, fondazione Bruno Zevi, roma, 2008.
2. Michele Vajuso, 『E42 -la gestione di un progetto complesso』, Palombi Editori, Roma, 2007.
3. Fiippo Lambertucci, 『Luigi Moretti -cinema-teatro e piazza imperiale all'E42, Roma-』, Edizioni Unicopli, Milano, 2001
4. Pino Scaglione, 『EUR controguida d'architettura』, Testo & Immagine, Torino, 2000.
5. Luciano Caramel, 『L'Europa dei razionalisti』, Electa, Milano, 1989.
6. G.C. Argan, 『Adalberto Libera』, Roma, 1975.
7. V. Quilici, 『Adalberto Libera.

- L'architettura come ideale』, Roma, 1981.
8. AA.VV., 『Adalberto Libera -Opera completa-』, Electa, Milano, 1989.
  9. F. Garofano e L. Veresani, 『Adalberto Libera』, Bologna 1989.
  10. Mario Lupano, 「Lotus international」, Electa, Milano, 1990.
  11. Armando dal Fabbro, 「Regole e procedure compositive nelle grandi architettura di Terragni」, 박사논문, 베네치아건축대학, 1990.
  12. Lee Dea-Jin, 「Il Fantasma in Architettura -alcune procedure formative dello spazio nel razionalismo italiano.-」, 박사논문, 베네치아건축대학, 2001.
  13. 이대진, 「이탈리아 코모(COMO)에 까자텔 파쇼(CASA DEL FASCIO)의 디자인 전개방법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55호(Vol. 17 No.1), 2004.
  14. 김종현, 「이탈리아어권의 신험리주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1호 통권 99호, 1997.
  15. 우신구, 「쥬세페 테라니의 건축이념과 형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서울, 1994.
  16. 김의용,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의 역사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4호 통권 174호, 2003.
  17.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시공문화사, 1999.
  18. 강혁, 「한국 현대건축에서 ‘근대(성)’의 개념과 성격」, 건축역사연구 제2권2호, 1993.
  19. Vittorio Magnago Lampugnani/ 김경호 외1인 역, 『현대건축사조개관』, 기문당, 1995.
  20. 천기석, 김두한역, 『기호학용어사전』, 민성사, 1988.
  21. www.romaeur.it (2009.07.01)
  22. photo.net/italy/rome-eur (2009.07.01)
  23. www.romeartlover.it (2009.07.01)
  24. www.palazzocongressi.it (2009.07.01)
  25. www.wikipedia.org (2009.07.01)

# A Study on the Congress Palace in new city(E42) of Rome

- Focused on the Adalberto Libera's project(1937-1943) -

Lee, Dea-Jin

(Associate Prof., Yeungnam Univ.)

## Abstract

The study is on the analysis of Adalberto Libera's works, which are those of the competition works for international congress hall in 'E42'. I exerted a conclusion from analysis and studies of congress palace as well as informed data about architect Libera and uninformed original sketch of it.

1. Through analysis of original sketch data in possession of archives of paris Centre Pompidue and relevant sketch from the works, Libera adopts the modern architecture of Italy to the formalization process of concept as one of architectural methods.

2. In contrast to the way of elucidation of historicity of classicism architect, Libera's initial sketch is one of the traits from modernist's architectural concept process. Libera completes his architectural style to have developed new architecture vocabulary from 'Floating transparent box' which was result from intuition and imagination.

3. By comparing all the first plan, the second plan and constructed project, we can infer that Libera's plan was influenced by E42's classicism urban environment and masterplanner Piacentini. In addition, through historicity explanation method of modernist, it is adjudicated that the front side of facade with classicism and the back side of facade with modern are partially accepted.

4. By analysing architectural concept's formalization process from original sketch of Congress palace, outstanding architect of Italian Fascism architecture, it provided new methods of architectural programming with the concrete examples.

Keywords : Fascism, Adalberto Libera, E42, Congress palace